

# 갈치·한치 많이 잡히고 있다는데...

### 제주 연근해역 중심 어장 형성돼 조업 어선 증가세 최근 3년 6~11월 어선사고 181건... 대부분 정비불량 제주시 '안전조업 주의보' 발효... "조업전 점검 필수"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 갈치·한치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어선 조업이 몰리면서 연근해 해상은 조업하는 어선의 불빛으로 밤마다 불야성으로 이룬다. 갈치·한치 어장 형성으로 어선조업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시기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3년간 6월에서 11월 사이 제주 연근해 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81건에 이른다. 2018년 35건에서 2019년 61건, 지난해는 85건으로 매년 증가추

세에 있다.

월별로는 갈치 조업이 급증하는 시기인 6월(38건), 7월(37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9월 33건, 10월 27건, 8월 26건, 11월 20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기관고장이나 어망걸림 등 단순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갈치·한치 성어기에 조업 어선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주시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오는 18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조업중 화재나 선체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및 항해 부주의로 인한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점검은 제주항, 한림항 등 어선이 밀집한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항해·기관·통신장비 등 조업전 선체 정비와 구명동의 상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선단편성 조업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조업중 해양사고 발생시 인근 조업어선 구조활동 지원 증점 지도와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은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연근해 어선의

365일 안전한 조업·튼튼한 조업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주도선적 연근해 어선의 해양사고는 총 419건 발생한 가운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2016년 77건, 2017년 76건, 2018년엔 70건으로 주춤했으나, 2019년 88건, 2020년에는 108건으로 급증했다. 사고원인은 419건 가운데 정비불량이 222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이어 운항과실 120건(29%), 충돌(좌초) 48건(11%), 기타 19건(4%), 화재 10건(2%) 순이었다. 해양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사망 44명, 부상 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 무더운 제주, 내일까지 비 날씨

### 어제 제주도 31.5℃ 기록 기상청 "돌풍과 천둥 동반 산지에는 최대 300mm 예상"

9일 제주섬 곳곳의 기온이 30℃ 안팎을 기록하면서 올들어 가장 더웠다. 더위는 10일부터 내리는 비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와 고산의 최고기온은 각각 31.5℃와 29.6℃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서귀포와 성산의 경우는 각각 26.9℃와 24.8℃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

제주와 고산이 무더운 날씨를 보인

이유는 동·남풍이 부는 가운데 강한 일사와 함께 기류까지 수렴되면서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무더운 날씨는 10~11일 내리는 많은 비로 누그러질 것이다.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0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제주 동부·남부·산지 100~200mm(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북부 중산간·서부·추자도 50~100mm, 북부 해안 50mm 내외의 강수량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 "교육희망지원금 학생 1인당 10만원"

### 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어제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제주도의회가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 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면서 지급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2255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21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정치성 이벤트' 등의 손소리가 지적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만은 조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학생 긴급 복지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지원대상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교육청 소관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이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연령대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와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내부 회의를 통해 지급방법,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6조231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10억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2억원 등 총 89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삭감한 예산을 주민불편 해소사업(12억원)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쓰임새를 조정했다.

오은지·이상민 기자

# "우린 너희들 못 믿어"

###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밀착 감시

### "편취한 돈 송금 여부 확인"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에서 '대면편취'로 바뀌면서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는 역할도 따로 생기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이고, A씨는 B씨가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대로 송금하는지 밀착 감시하는 역할이다.

B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에서 피해자를 만나 930만 원을 편취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잠복 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김 판사는 "(감시책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능동·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 "제2공항 정상 추진하라"

### 범도민추진협 촉구안 채택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제2공항범추협')는 9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공항 상생발전 방안 의견수렴과 정상추진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2공항범추협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2공항 건설에 계획된 국비가 제주에 투자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찬·반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종식하고,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미래를 위한 동력산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역할을 결집해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광어 사냥에 성공한 왜가리 9일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양식장 부근 바다에서 왜가리 한 마리가 광어사냥에 성공했다. 이윤형기자

# "민간특례사업 가결 규탄"

###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는 9일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며 "당장 하수처리와 상수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통체증

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으로 도의회가 얼마나 환경 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관대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은범기자

www.jeju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해삼몸국의 특징**

- 8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 잘 건조된 모자반을 찬 물에 불려 염분을 뺐 뭍
- 바다의 인산으로 불리우는 몸에 좋은 해삼
- 3無 첨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방법**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랍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냄비 조리 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푹베기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간이 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 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터질지 모르니 냄비의 뚜껑을 닫지 마십시오.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64-725-1100**

제조 판매원 **신한에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서서길 7-10